

27년간 접힌 채 살았던 中 '폴딩맨', 수술로 허리 펴고 새 삶



▲ 사진 왼쪽은 지난해 6월 수술 받기 직전의 모습, 오른쪽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20여 년 만에 허리를 편 채 스스로 걷는 리 씨의 모습

질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 탓에 27년간 상체를 완전히 구부린 채 살아야 했던 중국의 40대 남성이 수술로 새 삶을 시작했다.

일명 '폴딩맨'(folding man)으로 불린 남성 리화(46)는 27년 전인 19세 당시,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은 후부터 상체가 서서히 굽기 시작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발생해 점차적으로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은 만성적인 척추관절병 중 하나다. 진단 이후부터 리 씨의 상체는 점차 구부러지기 시작했고, 10여 년 전부터는 상체가 완전히 접힌 채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다.

허리가 점차 굽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마가 무릎에 닿을 정도까지 구부러졌지만 경제적 사정이 열악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허리를 바로 펴지 못하는 데다 머리가 거꾸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걷고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어머니의 간병을 받았지만 머리와 무릎의 틈이 고작 1.9cm에 불과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인생을 바꿀만한 기회를 얻었다. 광둥성 선전시의 한 병원이 그에게 수술을 제안했고, 리 씨와 어머니는 고향인 후난성 남부에서 멀리 떨어진 선전까지 이동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6월, 선전시의 한 병원 의료진은 구부러진 그의 척추를 바로 세우는 수술을 진행했다. 척추 사이에 죽은 신경들을 제거하고, 척추부터 허리와 가슴, 목에 이르기까지 직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형물을 장착하는 큰 수술이었다.

세 차례의 수술이 끝난 지난해 9월, 리 씨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몸을 완전히 편 채 누울 수 있었다. 부가적인 수술과 치료가 이어졌고, 마지막 수술을 끝으로 그는 앞을 바라본 채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



▲ 왼쪽은 강직성 척추염 진단 이전에 건강했던 리 씨의 모습, 오른쪽은 수술 받기 직전 건강 상태가 최악에 달했던 당시의 모습



▲ 왼쪽은 몸이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리 씨의 모습, 오른쪽은 수술 후 앞을 바라본 채 재활 훈련을 하는 모습

최근 공개된 영상은 보조기구에 의지한 채 걷는 훈련을 하는 리 씨의 모습을 담고 있다. 현지의료진은 "비록 수십 년간 제대로 쓰지 못해 약해진 팔 근육도 재활하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미 스스로 일어나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덕분에 지난달 퇴원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현재 리 씨는 고향인 후난성으로 돌아가 작은 가게를 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아직 치료와 재활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진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프칸판 복수혈전' ...10대 소녀, 부모 살해한 탈레반 전투원들 사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10대 소녀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탈레반 테러리스트들 중 3명을 직접 사살하고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혀 영웅으로 떠올랐다. 영국 가디언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아프간 중부 구르주(州)의 작은 마을 게리베(Geriveh)에서 일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탈레반 무장세력 약 40명은 이 마을 촌장이자 정부 지지자였던 소녀의 아버지 집을 습격했다. 이들 전투원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던 소녀의 어머니에게 총을

난사하고 문을 뚫고 들어와 소녀의 아버지에게도 총을 난사해 사살했다.

하지만 이들 전투원의 소행은 여기서 저지를 당한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카마르 굴이라는 이름의 14~16세로 추정되는 소녀가 집에 있던 AK-47 자동소총을 들고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탈레반 전투원들을 사살한 것을 포함해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혔기 때문이다. 이후 또 다른 전투원들이 소녀의 집을 공격하기 위해 왔지만, 이번에는 주민들과 친정부 민병들이 총격으로 맞서면서 이들을 쫓아냈다.

이에 대해 구르주 주지사 측은 아프간 치안군이 카마르 굴과 이 소녀의 12세 남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면 소녀가 사살한 테러범은 총 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아레프 애버 대변인은 "아이들은 처음 이들 동안 충격에 빠져 말을 거의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이복형제 말고는 친척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SNS상에서 소녀의 사진 한 장과 함께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네티즌은 소녀의 영웅적 행동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 현지 네티즌들은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것이 바로 아프간 소녀의 힘"이라는 등의 호평을 보였다. 사진=페이스북

헨슨&컴퍼니 변호사 사무실

한국어 법률 상담 403-537-8861

"법률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서두르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변 호 사



Gary E Hansen
캐나다 최고의 이민변호사



Ben Plumer
소송 / 개인상해 / 이혼 전문 변호사

법 무 사



에릭 김

- 부동산
- 여권 및 영주권사진
- 개인상해
- 공증
- 위임장
- 유언장 & 상속
- RCMP 범죄경력서를 위한 지문조회

미국이민 · 캐나다이민 · 회사법 · 공증 · 부동산 · 유언장 & 상속 · 이혼 · 위임장 · 개인상해 · 소송

HANSEN & COMPANY

558 - 9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S1 www.hansen-company.com / Tel. 403-261-6890 / Fax. 403-263-1632